

Human Rights and HIV/AIDS

인권과 에이즈



By Somsey
Norindr
United Nations
Resident
Coordinator &
UNDP Resident
Representative

At the dawn of the new century, some people opined that AIDS is one of the most pressing global issues, and I agree with this view. At the end of 1999, 33.6 million people were infected with HIV in the world, and 16.3 million already died from the epidemic. However, a vaccine and a cure are still far from discovery, and it is a reality that we will have to live with HIV for a long time.

While making expanded and coordinated response to the epidemic, the United Nations has stressed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essential to stop the spread of HIV/AIDS. Key rights are the rights to information, education, health and non-discrimination. The protection of these rights allows people to have access to information and education about HIV; to the means of prevention; and to an environment supportive of behaviour change. However, these rights have always been imperfectly realized. Widespread discrimination due to HIV status has made it impossible for those affected to make a living for themselves, and to contribute to their communities. Such discrimination has denied those living

새 천년이 밝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즈가 가장 시급한 지구촌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필자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999년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3천 3백 6십만명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1천6백3십만명의 사람들이 이미 에이즈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백신과 완치제의 발견은 아직 요원하며 앞으로도 장기간 에이즈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유엔은 에이즈에 대해 적절히 폭넓게 대응하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에이즈전파를 막는 필수적 요건임을 강조하였다. 정보,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의 권리 등이 주요 인권들이며 이러한 권리들의 보장은 정보와 교육, 예방수단, 행동변화를 가능케 하는 지지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기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감염인들로 하여금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취업, 교육, 사적 생활, 주택, 사회적 지원, 보건의료, 적정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들과 나아가 그들의 자유까지도 박탈해왔다.

with HIV, not only their dignity, but also their rights to employment, education, privacy, housing, social support, health care,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even their liberty.

The various HIV-related human rights issues manifest themselves in different forms, such as violence against women, universal freedom of travel and displaced people. With regard to the universal freedom of travel, over 50 countries use some form of HIV-related travel restrictions. However, there is no valid public health reason to do so, and such restrictions are not used against diseases that involve similar health care costs. These provisions affect thousands of people, often forcing them to get tested for HIV and denying their movement or resulting in their deportation, if found to be HIV positive.

The United Nations has already adopted a number of resolutions recognizing that the increasing challenges presented by AIDS require renewed efforts to ensur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It called upon member countries to ensure that their legislation, policies and practices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ohibit AIDS-related discrimination.

In Korea, there are about 230,000 migrant workers, among which more than half are working illegally. These people are marginalized and most vulnerable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Many people still wrongly believe that HIV is a "foreign" disease and there is widespread ignorance about the growing risk of contracting HIV locally. Taking this opportunity, I should like to call upon the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for their renewed commitment in addressing HIV-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 and further to develop the legal framework for promoting better living standards of migrant workers.

에이즈와 관련된 많은 인권침해문제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여행의 자유제한, 감염인의 격리나 국외추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5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에이즈와 관련하여 여행의 자유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자유제한조치가 공중보건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근거는 실제로 없으며 비슷한 수준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다른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강제적으로 에이즈검사를 받게 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감염인으로 판정될 경우 국외추방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엔은, 증가하는 에이즈의 도전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준수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이미 채택하였다. 유엔은 각 회원국들이 입법, 정책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에이즈와 관련된 차별을 방지함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는 약 230,000명의 외국노동자들이 있고 50%이상이 불법노동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기 쉬운 집단이다. 한국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를 외국질병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내감염위험의 증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에이즈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을 새롭게 하고 외국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A <번역/이영숙>